

이의리·정해영 이어 윤영철까지...위기의 KIA 마운드



윤영철, 요추 염증으로 엔트리 말소 선발 악재 SSG 상대 대량 실점...정해영 복귀 위밍업에 위안

KIA 타이거즈가 우승으로 가는 길에 또 다른 마운드 '암초'를 만났다. 좌완 윤영철이 허리 통증으로 선발진에서 이탈했다.

KIA는 14일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앞서 엔트리에 변동이 있었다. 전날 선발로 등판해 일찍 마운드에서 물러났던 윤영철이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대신 우완 김승현이 콜업됐다.

윤영철은 요추 염증으로 재활군이 됐다. 13일 SSG전 선발로 나섰던 윤영철은 허리 통증으로 2회가 끝난 뒤 구단 지정병원인 선한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 요추 염증 진단을 받은 윤영철은 15일 서울에서 2차 정밀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 등판을 소화하기 어려운 만큼 윤영철이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1위 독주를 준비했던 KIA에 발생한 또 다른 선발 악재다.

KIA는 앞서 이의리와 윌 크로우가 팔꿈치 통증으로 빠진 뒤 수술대에 오르면서 선발이 두 명이나 빠지는 사태를 맞았다.

활동하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발 한 자리를 차지했고, 크로우를 대신해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로

투입됐던 캄 알드레즈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선발진 재구성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발진의 이닝 부족으로 볼펜진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KIA는 마운드 위기를 겪었다.

올스타브레이크로 마운드 재정비 시간을 보낸 KIA는 LG 트윈스와의 후반기 첫 시리즈를 습승으로 장식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6연승 질주로 2위를 5.5경기 차까지 따돌리기도 했지만 SSG와의 주말 3연전에서 다시 마운드 위기를 맞았다.

12일 경기 선발로 나선 황동하가 3회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선발 싸움에서 밀리면서 6-14 대패를 기록했다. 13일에도 선발이 2회를 끝으로 물러나면서 초반 싸움에서 밀렸고, 이번에도 두자릿수 실점을 하면서 9-15패를 남겼다.

하늘도 KIA를 외면했다. 선발 부상 악재 속 이어 대량 실점을 하며 위기를 맞은 KIA는 14일 내심 비를 기다렸다. 밤새 많은 비가 내렸고, 경기를 2시간여를 앞두고도 비가 쏟아진 만큼 우천 취소를 기대했지만 날이 개면서 제임스 네일을 투입해 경기를 소화했다.

이범호 감독도 선발 로테이션 조정을 위한 '비'를

기다렸다.

이날 경기가 비로 취소될 경우 등판을 준비했던 네일을 16일 그대로 선발로 내세워, 21일까지 두 경기를 소화하게 할 방침이었다. 여기에 4-5선발이 흔들리면서 연달아 볼펜진이 많은 이닝을 소화하느라 부담이 가중된 만큼 로테이션을 조정할 계획이었다.

1, 2선발 사이에 황동하를 넣고 그 뒤에 3선발을 넣어 볼펜진의 과부하를 막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예정대로 경기가 진행되면서 로테이션 조정을 놓고 고민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건국을 대체 선발로 기용하겠다고 밝힌 이범호 감독은 "5월만 넘어가면 되겠다" 했는데, 계속 선발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면서도 "힘들 때 타자들이 힘을 내줘야 한다. 그게 팀이다. 어느 팀이나 부상 선수는 똑같이 나온다. 이기는 경기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 1-3선발이 나갈 때는 확실하게 이기는 경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부상 악재 속 마무리 정해영의 움직임은 그나마의 위안이다. 6월 24일 어깨 염증으로 자리를 비운 정해영이 복귀를 위한 위밍업에 나섰다.

9일 캐치볼을 시작해 11, 13일에도 공을 잡고 서서히 페이스를 올리고 있는 정해영은 "지금 몸상태는 좋다. 캐치볼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피칭도 할 예정이다. 빨리 가서 역할을 하고 싶다. 천천히, 빠르게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윤영철

광주일고, 청룡기 결승 문턱서 좌절

4강전서 용마고에 2-3 역전패

광주일고의 청룡기 우승 도전이 무산됐다.

14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79회 청룡기 전국교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4강전에서 광주일고가 미산용마고에 2-3 재역전패를 당했다.

광주일고는 전날 치러진 8강전에서 19연승 질주 중이던 덕수고를 꺾으며 화제를 모았다. '우승 후보'를 제압하며 준결승에 진출한 광주일고는 그러나 7회 무사 만루 위기를 넘지 못하고 결승행 티켓을 놓쳤다.

이날 경기 선취점은 용마고가 가져갔다.

2회말 광주일고 선발 진시후가 선두타자 김주오에게 우익수 키 넘는 2루타를 허용했다. 희생번트

로 1사 3루, 투수가 김태현으로 교체됐지만 용마고 최민상의 스윙스 번트가 나오면서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왔다.

3회초 광주일고야 바로 승부를 뒤집었다.

진시후가 선두타자로 나와 2루타를 날리며 공격의 물꼬를 텄다. 김성준의 번트로 1사 3루를 만든 광주일고가 김태현의 우중간 2루타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리고 박현의 우전 적시타로 2-1 역전에 성공했다.

이후 경기는 투수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2-1로 앞선 7회말 광주일고가 위기를 맞았다.

선두타자 전태현을 내야안타로 출루시킨 뒤 몸에 맞는 볼이 나오면서 무사 1-2루, 이어 볼넷으로 무사 만루에 몰렸다. 김태현이 최민상을 상대로 2

루 땅볼을 유도했고, 2루수 이윤우가 홈으로 공을 던져 원아웃을 만들었다. 이어 차은성과의 승부에서 스탠딩 삼진을 뽑아내면서 투아웃.

2사 만루에서 이재용과의 승부가 펼쳐졌다. 초구 파울 뒤 헛스윙으로 투 스트라이크의 유리한 볼 카운트를 만든 김태현, 3구째 바깥쪽 높은 공에 상대가 반응했다. 방망이가 끌려 나오다 멈췄고 3루심이 노스윙을 선언하면서 광주일고가 이닝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결국 5구째 승부 끝에 이재용의 타구가 우중간에 떨어지면서 동점 주자에 이어 역전 주자가 홈에 들어왔다.

이후 남은 두 번의 공격에서 광주일고가 모두 삼자범퇴로 물러나면서 결승 티켓은 용마고의 차지가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12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페퍼스와 현대건설의 연습경기가 진행됐다. 페퍼스 선수단이 득점 후 기뻐하는 모습. <페퍼스측은행 제공>

페퍼스, 현대건설과 연습경기서 승리

세트별로 선수교체하며 '배구 팬들과의 축제' 즐겨

페퍼스축은행 AI페퍼스가 현대건설 배구단과 연습경기에서 승리하며 다가올 V리그 2024-2025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페퍼스는 지난 12일 무안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현대건설과의 연습경기에서 세트스코어 2-1(25-20 25-22 16-25)로 승리를 거뒀다.

페퍼스는 이날 경기에서 세트별로 선수를 교체하며 경기를 풀어나갔다.

1세트는 아웃사이드히터 박정아·박경현·이한비, 미들블로커 하혜진·박연화, 세터 박수빈이 출전했다. 채선아가 리베로로 나섰다.

2세트에서는 박수빈 대신 세터 박사랑, 채선아 대신 리베로 한다혜가 투입됐다.

페퍼스는 마지막 3세트에 박수빈, 아웃사이드히터 박은서·류혜선·이예림, 미들블로커 박연화·임주은, 리베로 채선아를 기용하며 선수진을 다양하게 활용했다.

페퍼스 관계자는 "이번 경기는 '전력 탐색을 위한 자리'가 아닌 '배구 팬들과의 축제'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이유에서 주전 선수

를 정한 게 아니라 선수들을 세트별로 두루 교체한 것"이라고 밝혔다.

페퍼스는 이날 승리의 요인으로 '부담 없이 즐기는 마음'을 꼽았다.

장소현 페퍼스 감독은 "이번 연습경기는 현대건설에서 초청해서 성사된 감사한 자리"라며 "승패를 따지기보다는 우리 선수들이 비시즌에 팬들과 함께 경기를 즐길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었다. 팬들의 열띤 응원 분위기 덕에 현대건설만 사인회를 진행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이 공동 사인회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날 현대건설 선수단의 팬사인회가 예정됐었지만 페퍼스 선수단까지 함께 하는 공동 팬사인회로 진행됐고, 200여명의 팬들이 몰렸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은퇴한 배구계 선배들이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차상현 SBS스포츠 해설위원(전 GS칼텍스 감독)과 이숙자 KBS N 스포츠 해설위원(전 정관장 코치)이 경기를 관전하며 후배들을 응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이동국도 나섰다...“박주호에 법적 대응? 이견 아냐” 축구협회 비판

이영표·박지성도 박주호 두둔

국가대표 스트라이커로 활약했던 이동국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박주호에게 법적 대응을 시사한 축구협회에 날을 세웠다.

이동국은 지난 13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국가대표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K리그에서 오랜 시간을 뛰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배로서, 선배로서 더 잘 챙겨야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단어가 내 머릿속을 강타한다. 법적 대응"이라며 "누구보다 노력한 사람한테 이런 단어는 아니다. 신뢰를 잃은 지금, 누구의 탓이 아니라 모두가 본인의 탓이라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략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전 국가대표 골키퍼 박주호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폭로' 영상을 올렸다.

K리그1 울산 HD를 이끌던 홍명보 감독이 국가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되는 과정이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일부 전력강화위원이 외국 지도자보다 국내 축구인을 선임하도록 몰아갔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축구협회는 박주호가 비밀유지 서약을 어겼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주호는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제시 마쉬 캐나다 대표팀 감독,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잉글랜드) 감독 등 최종 후보로 언급됐던 지도자들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국은 "이번 국가대표 감독 이슈가 크다. 5개월이 넘는 시간을 지켜보며 참 아쉽다고 생각했다. 과정이 좋아야 하는데 한국 축구 팬들의 격정과 기대만큼 잘되지 않은 것 같다"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도 앞으로 여러 부분에서 K리그와 국가대표에 힘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여러분도 한국 축구 응원해주시고 쓴소리도 해달라"라고 썼다.

이동국은 지난해 1월부터 축구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그해 4월 승부 조작 연루 등 사유로 징계 중인 축구인들에 대한 협회의 '기승' 사면 조치

를 놓고 공분이 커지자 사퇴했다.

앞서 이영표 해설위원, 박지성 전북 현대 테크니컬 디렉터 등 유럽 축구를 경험한 '선배' 축구인들도 박주호를 두둔하며 축구협회를 향해 날을 세웠다.

홍 감독은 지난 10일 광주FC와 홈 경기를 치른 후 기자회견에서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박주호의 의견을 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감독은 "박주호(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의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도 포용해서 더 나은 한국 축구를 위해 발전돼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II <Romantic>

일시 : 2024-07-18(목) 11:00,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

광주시립오페라단 제15회 정기공연 | 콘서트 오페라 가족 오페라 <신데렐라>

일시 : 2024-07-26(금) 19:30

2024-07-27(토) 15:00,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

문의 : 062-412-2502